

전염성 코라이자[Intecfious Coryza]

원 송 대

<한국 카이질 기술지도부장>

전염성코라이자는 닭의 호흡기 질병으로 콧물, 재채기 및 안면부종을 외형으로 하는 닭의 급성, 만성 질환이다.

병인체는 헤모필러스·가리나룸(Hemo philus gallinarum)으로 한번 계군에 침입하면 빨리 전파되며 그 경과를 보름 내지 수개월 지속하는 것이 특징이다.

폐사율은 거의 무시할 정도이나 식욕감퇴, 음수량감소, 체중감소 및 산란율 강하가 눈에 띄일 정도로 나타난다.

전파는 보균계의 비루(콧물)로부터 감염되는 것이 주된 감염원이나 비말감염(먼지를 통한 감염), 사료포대 및 난좌(알장사의 난좌) 또는 관리인의 신발, 옷을 통해 전파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.

증 상

초기에는 맑은 콧물을 흘릴 정도이나 만성으로 경과하면서 얼굴(안면)이 붓고 육수가 부어 물렁 물렁해진다[사진 1·2].

이 염증현상이 눈갈지 파급하면 눈도 붓고(결막염) 회색눈물(전락성 삼출물)이 나온다[사진 3·4]

때로는 호흡곤란으로 헉헉거리는 놈이 보인다. 이 질병은 환경위생불량, 내부기생충, 사료의 결함 및 다른 세균(포도상구균, 대장균)의 복합등에 따라 그 피해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.

그 피해란 폐사로 인한 것이 아니고 부로일러에서는 증체의 지연이고 산란계에서는 산란율의 감소로 경제적 피해를 말한다.

진 단

임상증상이 특이하지 않으므로 다른 호흡기 전염병과 임상 감별은 곤란하다.

안면과 육수가 붓는 병은 닭 콜레라의 만성에서도 볼 수 있고 눈물, 콧물흘리면서 재채기를 하는 병은 C.R.D. 계두 또는 비타민 A 결핍증상에서도 볼 수 있는 증상이므로 전문수의사의 진단을 필요로 한다.

이 전염성 코라이자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인데 흔히 C.R.D라는 병명속에 도매금(?)으로 넘어가고 있는 듯하다.

예방 및 치료

○ 가을 겨울에 다발하므로 겨울계사내의 환기와 온도는 예방의 최선책이다.

○ 병아리는 성계와 분리 사육을 할 것.

○ 병계는 즉시 분리해야 한다.

○ 병의 발생초기에 빨리 치료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.

○ 치료약제로서는 설파디아졸(Sulfathiazole)을 사료에 0.25% 섞어 4~5일간 투여하면 잘 듣는다.

만일 효과가 없으면 코라이자가 아님을 의심해도 좋다(치료적 진단법)

○ 다음으로 치료제로서 디하이드로스트렙트마이신(Dihydro Streptomycine)을 1수당(성체) 200mg 근육주사를 1~2회 실시한다.

감 별 진 단

	전염성 코라이자	호흡기성마이크로프라스마	점막계두형
발생년월	년중	년중	겨울철(11~3월)
병형	전령	주로 중추	유추~중추
폐사율	0	0~10%	10~80%
전파빠름	느림	느림	느림
증상	수양성비루, 안면부종, 성종, 콧물, 흘림	농양성비루, 눈물, 콧물, 흘림	눈물, 안검, 종창, 개구, 호흡
병변	상기도염성부종	상기도염	후두, 기관상부에 발두 및 위막형성